

도내 시·군 대표 전통 예술인 기량 겨뤄

진안서 '제67회 전북민속예술축제' 개최... 진안 '마이얼두마당' 농악단, 대상 수상 영예

진안군은 전통 열과 신명을 한데 모으는 '제67회 전북민속예술축제'가 지난 27일 마이농촌테마공원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통 열과 신명을 한데 모으는 '제67회 전북민속예술축제'가 지난 27일 진안군 마이농촌테마공원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회장 최무연)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도내 시·군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인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경연은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7년 제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할 전북특별자치도 대표팀을 선정하는 중요한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심사위원과 응원 가족을 비롯해 청소년부 및 성인부 경연에 나선 6개 팀, 총 200여 명이 참여해 마이산의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경연 종목은 농악, 민속놀이 우리 고유의 멋이 살아있는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됐다.

진안마이얼두마당을 비롯해 익산 삼기농요보존회, 전주 농악, 임실 전통예술원 두레, 순창 농악단 등이 참여해 관록과 열정이 묻어나는 값이 있는 공연을 펼쳤다.

특히 진안군 대표로 출전한 '마이얼두마당' 농악단 30여 명은 신명 나는 가락과 탄탄한 구

성으로 대상을 수상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전북의 열과 신명을 한데 모으는 뜻깊은 축제를 이곳 진안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우리 민속예술의 무궁한 발전과 저변확대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논개 전국관소리경연대회 성료

전국 291명 소리꾼 경연 펼쳐

장수군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사)금강유령애소리보존회와 공동으로 제17회 장수논개 전국관소리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의암 주논개의 총질과 예술정신을 기리고, 우리 전통 관소리의 계승·발전과 우수한 소리꾼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명창부, 일반부, 일반논개부, 신인부 개인, 신인부 단체,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초등논개부 등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291명의 소리꾼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에서는 △명창부 대상(국회의장상) 김재우(서울특별시) △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신수연(서울특별시) △일반논개부 대상(국회의원상) 정하운(서울특별시) △신인부 개인 대상(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이월재(전북 남원) △신인부 단체 대상(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김은선



의 3인(전남 영암) △고등부 대상(교육부장관상) 변관영(전북 남원) △중등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우민지(서울특별시) △초등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서지아(대구광역시) △초등논개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김강현(전북 장수)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훈식 군수는 "전국 각지의 소리꾼들이 의암 주논개의 고장 장수에 모여 우리 소리의 멋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장수논개 전국관소리경연대회가 우수한 관소리 인재를 발굴하고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관소리경연대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호남 유일 왕비 정순왕후 생애 조명

정읍시립국악단, 창무극 '정순왕후 단종비 다시 새빛으로' 성황리 마무리

정읍시립국악단이 지난 26일 저녁 정읍시예술회관에서 호남 유일의 왕비인 정순왕후의 삶을 다룬 창무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무대는 '정순왕후 단종비 다시 새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읍 칠보면 출신인 조선 제6대 단종의 정비, 정순왕후 송씨의 비극적이면서도 고귀한 생애를 조명했다.

남편과 이별한 뒤 평생 절개를 지켜낸 애절

한 삶을 깊이 있는 창과 역동적인 춤사위로 표현했다. 여기에 정교한 연주와 화려한 영상미, 섬세한 조명 연출이 어우러져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에는 본 공연에 앞서 언론 시연회(프레스 리허설)를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기자들을 초청해 주요 장면을 미리 선보이면서 기획 의도와 주요 관람 요소를 안내해



눈길을 끌었다. 이화수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의 소중한 역사 자산을 세련된 문화 콘텐츠로 발굴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나를 위한 쉽, 국악 명상' 호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예원당 로비에서 운영한 2026년 상반기 '나를 위한 쉽, 국악 명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국악 명상은 국악과 명상을 결합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무아, 곁을 듣다'라는 소리로 흐르는 감각 명상'을 주제로 총 6회 운영됐으며, 참가자들은 국악 선율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예원당 로비를 명상의 공간으로 꾸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참가자들은 국악을 공연으로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소리와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환기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하반기 국악 명상은 오는 9월과 10월 중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8월 중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화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김제서 개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지혜와 용기, 가족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동화발레로 선보이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이 오는 7월 10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작품으로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망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북래시터가 선보이는 가족 발레극이다.

동화 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은 회오리바람에 실려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소녀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대한 마

법사 오즈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여행길에서 생각하는 뇌를 갖고 싶은 허수아비, 따뜻한 심장을 원하는 양철나무꾼, 용기를 얻고 싶은 겁쟁이 사자를 만나 함께 에메랄드 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로,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발레 퍼포먼스와 신비로운 마술쇼, 춤추는 요정들의 무대가 어우러져 어린이 관객은 물론 가족 관객 모두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30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mpj.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기적의도서관, 독서 권장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공연

정읍기적의도서관이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7월 11일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 권장 음악극(뮤지컬) '브레멘 음악대'를 두 차례 공연한다.

공연은 당일 오후 2시와 4시에 열린다. 이번 무대는 세계 명작 동화 원작을 바탕으로 극단 씨앗이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늑과 병들어 버림받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협동과 우정, 용기

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게 꾸며진 점도 특징이다. 다채로운 무대 연출과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를 앞세워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람 신청은 7월 1일부터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비롯한 정보 취약 계층 어린이들도 행사에 특별 초청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